

# 빨라진 與 전대 시계... 지도부, '수도권·MZ지지' 조건 제시

시기, 내년 2월 말~3월 초로 무계 당원·일반 당원 투표비율 문제 윤곽 비수도권 출신 당권주자, 부정적

국민의힘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속도가 붙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4인방부터 당 지도부에 이어 당권 주자까지 연이어 만나면서다. 당내 쟁점인 전당대회 시기는 '2말 3초'(2023년 2월 말, 3월 초)로 무계가 실렸고, 당원·일반 당원 투표 비율 변경 문제도 윤곽이 잡히는 분위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개최 문제는 우리 국회 최대 현안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한 후에 논의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전당대회 관련 현안은 비대위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정진석 비대위 활동 기한(내년 3월 12일) 안에 차기 지도부 선출을 끝내는 방향으로 가닥 잡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4일 KB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시스

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자리에서 "비대위원회 1차 임기 전에 새 전당대회 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차기 지도부 선출 방식 변경 방안(전당대회 '물')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당은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방식으로 지도부를 선출했다. 이번에는 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고, 여론

조사 반영은 낮추는 방향('당원 투표 90%, 여론조사 10%', '당원 투표 80%, 여론조사 20%')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 관련 현안들이 정리되는 가운데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차기 당 대표 조건도 제시했다. 이들은 'MZ세대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을 차기 당 대표 조건으로 꼽았다. 차기 당 대표 주자들이 이른바 '윤심'(윤 대통령 의중)을 찾는 가운데

구체적인 조건이 제시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대구 수성대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 당시 "(차기 당 대표)는 수도권 의원 수가 전국의 절반이 넘는 만큼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고 MZ세대에게 인기가 있으며 공천 잡음을 일으키기 않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 안팎에서 현재 거론 중인 당권 주자들을 언급한 뒤 "(당원들) 성에 차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기 지도부가 그야말로 상식과 공정, 정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MZ세대, 젊은 세대에 공감하는 지도부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주호영 원내대표 의견에 동의했다.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수도권', 'MZ(20·30)세대 지지'를 언급하자 두고 당권 주자들은 들썩였다. 수도권 출신 당권 주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비수도권 출신 당권 주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수도권 출신인 윤상현(4선, 인천 동구미추홀구)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수층 지지만으로 절대(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중

도와 2030 세대 지지를 끌어올 수 있는 대표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민심을 살피고 치밀한 선거 전략도 아는 대표가 나와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안철수(3선,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의원도 지난 4일 SNS에 "변화를 상징할 수 있는 사람, 독심을 갖고 한국 정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온 사람, 수도권과 중도와 젊은 세대의 지지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당의 얼굴이 돼야 유권자에게 변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최근 윤 대통령과 독대하며 만찬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현(4선, 울산 남구을) 의원은 "지역주의에 편승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 출신 지역이 수도권이나, 영남권이나 중요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경태(부산 사하갑) 의원도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차기 당 대표는 공정성과 상식을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며 "MZ 세대에만 인기가 있으면 되겠다. 전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된다"고 반박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조용한 취임 100일 보내는 이재명

# “질식하는 민주주의 반드시 지켜낼 것”

최고위서 성과·향후 방향 언급 “시급한 민생 중점법안들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내내 이재명 당 대표를 겨냥한 '사법 리스크' 우려가 검찰의 민주당 압수수색과 최측근의 연이은 구속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조용한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당시 매번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러나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해 별도의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임 100일간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언급하며 “질식하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00일 동안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들의 간절한 여망을 받들기 위해 ‘민생’과 ‘민주’ 투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왔다”며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 실천에 매진해 미성년 상속자의 ‘빚 대물림 방지법’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 중점법안들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 3법”과 “3대 민생회복 긴급 프로그램” 같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과 정책들도 추진 중”이라며 “정부의 초부자 감세와 비정당한 특권 예산에 맞서 따뜻한 민생예산 관철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당원이 주인 되는 민주당의 기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 문제는 검토가 있었는데 정 기회가 진행 중이고, (예산안이) 협상되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기보다 신년에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다”며 “오늘내일 사이에 특별히 100일을 맞이해 하는 간담회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의혹 등 사법리스크 우려가 커질 것 같아 한 결정인가’라고 묻자 “그렇지 않다. 아니다. 잘못된 보도”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반면,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취임 100일을 맞은 대표를 향해 “총체적 사법 리스크로 100일 기자회견마저 고사한 이 대표가 ‘대화’와 타협을 운운하는 것부터 코미디”라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 100일이 남긴 건 총체적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한 정쟁화와 ‘재명수호’를 구호로 한 사당화 시도뿐”이라며 “자기 자신이 피의자로 기소된 것도 모자라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뻔뻔히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대국민 민폐”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 대표 한 사람의 이기심과 제1야당의 집단 광기가 국가의 민생, 경제를 통째로 뒤흔드는 작금의 세태는 대한민국의 오점으로 기록돼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조속한 퇴진이 곧 민생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제54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 /뉴스시스

## 尹 “법·원칙 바로 서야 복합 위기 극복”

국가조찬기도회 김건희 여사와 참석 “국민·국가 위해 어려움 마다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하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진정한 약자들을 보듬는 길이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54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노력이 더 큰 결실을 맺고 따뜻한 온기가 나라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운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제가 처음 정치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다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켜나겠다는 소명을 이 자리에 서서 다시 새기고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이 소명을 받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늘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해서도 “지난 56년간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사회 곳곳을 밝히고 나라에 큰 힘이 돼 왔다”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낮은 자리에서 국민의 아픔을 함께 하는 우리 교회의 헌신은 우리 사회를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 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큰 힘과 용기를 주고 국가 번영을 위해 항상 기도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고비마다 큰 힘이 되어준 한국 교회가 온 세상에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수천만의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오늘 이 기도회가 이 나라의 미래와 번영을 기원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지난 1966년 시작돼 56년간 이어져 온 초교파 기독교 성도 모임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연 1회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종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국가조찬기도회에는 취임 이후 첫 참석이다.

/박정익 기자